



人心과 正道



임연태
본지 편집부장

올 여름은 모든 것이 하향일로(下向一路)다.

'비상의 희망' 보다 '하향의 절망감' 이 세상을 덮고 있다. 각종 경제 지표의 하락은 극심한 불경기에 위촉된 민심을 불안하게 한다.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역시 더 이상 아래가 어딘지 구별하기 어렵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급격히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 같은 하락세는 당연히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동반 하락하게 한다. 재미없는, 살 맛 안 나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정치인들은 "인심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금언을 잊고 사육과 당리당락에만 눈이 멀어 민심을 반을 자초했다. 경제 역시 정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권력 혹은 편법에 의지해 온 과거의 악습을 청산하지 못해 질곡의 구도를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심과 정도' 두 가지가 결여된 사회는 언제나 혼란 그 자체였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도 그 두 가지가 실종된 어느 사막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고난이 더 큰 행복을 길어 올리는 힘이라는 믿음을 잃지 말자. 하향의 끝자락에서 바다를 치고 다시 솟구치는 지혜가 우리를 자성 속에 품들여주고 있음을 믿고 있으라 말이다.

우리는 절망도 희망도 모두 우리 마음이 지어내는 것임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절망스러운 곳에서 희망가를 부르고 희망의 순간에 절망을 대비할 줄 아는 지혜야말로 참불자의 자세가 아닐까?

무더운 고속도로를 가득 메운 휴가 차량들이 그 지혜의 자리를 확인 하고 돌아오는 행렬이 되길 바란다.

한없이 짜증스럽고 어지럽고 한심스럽고 슬프고 안타까운 세상이다.

한 학원장이 자기 학원 학생을 납치하고, 자기 친구인 여대생을 유괴하여 돈을 울겨내려 들고 아파트나 은행에 뛰어들어 한번에 많은 돈을 보듬으려 든다. 아내 이름으로 혹은 남편의 이름으로 보증을 들어놓고 상대방을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한 다음 보험금을 타내려 한다. 한 택시기사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한 밤중에 자기 다리를 철길 위에 묶어 지나가는 열차 바퀴에 걸러나가게 했다. 한 젊은 아버지는 초등학교생인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강도당한 것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아무리 재주를 잘 넣는 손오공도 결국은 부처님의 손바닥 위에서 놓고 있을 뿐이란 말이 있다. 한데, 재주를 부려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용용 죽였지 하면서 달콤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생겨날 돈 문명이에 시아가 가려 사리판단이 어수룩해진다. 그의 눈에는 돈 문명이란 보일 뿐 자기의 실수와 사악함으로 말미암은 죄와 벌은 보이지 않고, 오직 성공만 보일 뿐 절대로 실패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은 지천으로 널려 있다. 수많은 이익단체들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불자 세상보기

한승현
소설가

한 역무원이 던진 희망의 빛

행거 들고 있다. 정치판의 추악한 무리들도 자기들 이익 행거에만 급급하다. 자기 한 몸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되고, 자기 자식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다.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데 누가 무어라고 한다는 것이냐 하고 골뎠 여행 간다고 나가서 카지노로 돈 날리고 망신만 사오기도 하고 고가 상품들을 밀수입하기도 한다. 그들은 우리를 거둬 절망하게 한다.

그러한 편에 우리는 모처럼 희망의 빛을 대하게 되었다. 한 젊은 역무원이 열차 바퀴 속으로 들어갈 위험에 처해 있는 어린 아이를 구한 다

을 자기는 막상 두 다리 잘리는 사고를 당한 것. 얼마 전 일본에 유학 간 한 젊은이가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보고 바야흐로 열차가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 구해낸 다음 자기는 막상 목숨을 잃은 일이 아직 우리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착한 일을 하라는 가르침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귀 아프게 들어왔다. 한데 착함은 용기 가지지 않는 자는 이루어낼 수 없다. 이번 그 역무원의 착함과 용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사라져가는 착

열린마당 조계종 통합신도회가 나아갈 방향

조계종 신도회 통합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백창기 선전규)는 7월 25일 조계사 불교대학 제2강의실에서 통합신도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신도운동 50년을 통해 본 신도회의 지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안식 전국신도회 상임부회장, 임동현 중앙신도회 기획실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김경식(부천대 교수) 씨가 발제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요약했다. <정리> 박병영 기자



조계종 신도회 통합추진위원회는 7월 25일 '신도운동 50년을 통해 본 신도회의 지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열정, 헌신, 순수한 불심으로

김광식(부천대 교수)

반성, 이념정립 등 내부고민 절실

신도회에 대한 최우선의 문제는 신도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그러나 일반 대중, 일반 신도들이 과연 신도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무엇을 해 왔고, 종단과는 어떤 연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알지 못한다. 이는 신도회의 이념과 지향에 대한 문제이다. 불교를 믿고 수행하고 실천하고 그리하여 불교를 삶의 중요한 증거로 하여 살고 있는 다수의 불자들은 신도회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미약함을 말한다. 이에 대한 응답을 위해서는 신도회 내부적으로 차열한 자기 반성과 이념 정립, 노선의 재정비 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전국신도회, 중앙신도회의 역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종단의 사부대중 운영체의 요망이다. 이는 신도회 차원뿐만 아니라 모든 신도, 불자들이 당위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신도회의 전통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반성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위에 21세기를 주도하는 신도회가 될 수 있고,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신도회로 나아갈 수 있다. 신도회는 신도들의 조직이요, 지향이다. 그 후 종단의 구성원, 구성체로서의 신도회이다. 이러한 등식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신도회의 노선과 성격은 이미 신도회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손안식(전국신도회 상임부회장)

조직 정비, 대중 참여 유도

재가불자들의 순수한 신행조직체로 설립된 전국신도회는 94년 종단개혁 당시 아무런 절차없이 종단에 의해 사무실 폐쇄, 해체 선언을 당했다. 재가불자들의 자발적인 신행조직이 종단에 의해 폐쇄된 좋지 못한 선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전국단위 연합 조직으로서의 특성을 강화하여 통일된 실천이념으로 불교를 선도해야 함에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하부조직과 중앙간의 괴리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통합신도회는 중앙과 하부조직의 강한 조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하며, 대중이 참여하는 신도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정, 자립도 통합신도회의 절실한 문제이다. 이를 통해 통합신도회는 사상과 이념의 올바른 정립, 조직역량의 강화, 실천의 내용을 확신해야 한다.

임동현(중앙신도회 기획실장)

창립정신 잊지말아야

중앙신도회의 출범 의의는 과거 교계의 권력과의 유착을 통한 불자의식의 왜곡, 부정과 비리로 인한 불교의 명예실추, 그로 인한

불교의 사회적 신뢰 저하 등을 재가불자 차원에서 결별하고 바른 신행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신도조직의 결성이라는 점에 있다. 그 밖에도 불교 신도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 신도회의 구성원칙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

앞으로의 통합신도회는 전국신도회 초기 활동가들의 불교와 종단에 대한 열정과 헌신, 중앙신도회를 통해 나타난 신도운동에 대한 지향, 역사와 사회 앞에 책임 있는 신도회의 추구 등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신도회의 역사와 불자들의 바른 신행에 앞장서고 사회와 역사에 책임 있는 신도회를 지향하는 중앙신도회의 창립정신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최승천(중앙신도회 정책위원)

권력예속, 정치적 이용 경계

전국신도회의 창립 시기는 불교계의 정화불사가 한창이던 어수선한 시기였다. 종단 정화 적극 참여 결의, 분규사찰 정화에 대한 제반대책 수립 등의 활동사항이 담겨있는 것을 보면 종단 정화 문제가 당시 신도회의 최대 화두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67년 13개 시도지부, 24개 교구지부회, 153개 시군지회, 812개 사찰 신도회가 결성됐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당시 권력자였던 이후락 청와대 비서실장이 회장에 취임하면서 권력에 예속되는 아픈 전철을 밟았다. 권력자의 신도회 진출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도회가 정치적 이용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파동명상수행으로 영통靈通을 하신 스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만 여기에는 허락을 하신 분의 사례만 신고 있습니다.

○ 오봉사(경북 김천시 소재)의 대연스님 퍼져나가면서 청정광명한 흰빛 한줄기가 스님의 몸 전체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순간의 수련기간 중 삼일 썰 되는 날 저녁, 스님이 잘 아는 신도 한 분을 파동 명상을 통하여 영적인 점검을 시도해 보았는데 그 순간, 스님의 등 부근에서 큰 구멍이 뚫리면서 수없이 많은 어떤 나쁜 기운들의 뭉치가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느낌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희열감이 넘쳐나면서 백희혈 부근에서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력이 몸 전체로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 파동명상제명 : 제주(祭主) 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 원격명상제명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명천도 할 수 있다.
-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 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 수련일시 : 8월 3째주 (본원사정에 따라 변경) (미)
- ◆ 수련과정

-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수련비 200만원)
-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